



# 독창적 목재 개발 시급

## 30여년 목재경험으로 최선을 다할 터

김태규 /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 국목재공업협동조합은 지난 2월 26일 여의도 63빌딩 칸나홀에서 열린 제 35차 정기총회에서 (주)동양목재 김태규 사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중임을 맡겨주신 임직원 및 목재 업체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계에 봉사한다는 의미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30년간 목재업에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조합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합 사업부분을 크게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규 이사장은 진주 농림고등학교 ‘임학과’, 충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7년여 간을 목재업계에 종사한 이후 1972년, (주)동양목재를 창립했다.

김 이사장이 젊었던 시절만 해도 목재업, 철제업, 건축업은 ‘남자’ 라면 한번쯤 도전해 볼만한 사업으로 정평이 나 있었던 분야였다. 당연스레 목재업을 선택했다는 김 이사장.

“어렸을 때부터 이유 없이 나무 만지는 것이



좋고 관심이 많았다”는 그는 “고등학교 때 ‘임학’을 공부한 것이 오늘날까지 목재업계에 머무를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목재업은 ‘사양 사업’이라서 어려운 고비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태규 이사장은 “국내 생산 원자재와 목재업계의 인건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무엇보다도 원자재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목재는 친화력이 높고 친환경적일 뿐 아니라 선진국일수록 그 사용량이 증가하는, 즉 국민소득과 정비례하는 제품이다. 그에 반해 인력이 많이 드는 일이라서 수입 완제품의 가격보다도 인건비 지급 비용이 높은 사업이다.

국내산 목재의 자금율이 낮은 우리의 현실에서 수요자의 국산재의 이용증대는 수입목재 가격의 변동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뿐더러 목재가공기술의 발전과 가공기계장치의

## “국내산 목재 이용에 대한 수요자 인식전환 필요”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30%가 넘는 원자재를 순수 자국에서 개발해 내고 있습니다. 즉, 목재업은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고 생산했을 때 비로소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계가 점점 자동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국산품을 애용하려는 수요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70%의 목재업체가 도산, 나머지 30% 정도가 생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김 이사장은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으로 업체간의 과다 경쟁을 피하고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할 것을 역설했다.

현재 (사)한국파렛트협회 회장을 함께 맡고 있는 김태규 이사장은 “업무적인 면에서 파렛트와 목재업이 중복 부분이 많아 큰 어려움은 없지만 친환경적인 목재 파렛트를 개발해 수요자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고 밝혔다.

30여년 목재인생을 걸어온 김태규 이사장은 일하는데 있어 어떤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성실하게 발로 직접 뿔 것”을 강조했다.

최고의 목재 품질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시작한 김 이사장의 경영방침은 현재 대표이사로 있는 (주)동양목재의 축적된 기술 운영과 최신식 완전 자동화 설비의 정착을 이루게 했다. 또한 지난 95년 사회봉사 금상 수상에 이어 2001년

‘인천광역시 품질경영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날게 했다.

김태규 이사장은 앞으로의 조합 운영계획에 대해 “반드시 조합을 활성화하겠다”고 단언했다.

“조합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각 업체에 큰 이득이 없다는 인식 때문”이라면서 “각 업체들에게 이익을 주고, 모든 목재업체가 조합안에서 단합될 수 있도록 크고 작은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은 2002년 올해 사업목표로 제재목 수출 진흥, 판급 물량의 확보와 수급, 수입선의 다변화 연구개발, 기업간의 공정거래 유지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할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김태규 이사장은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관세 문제를 얘기했다.

“현재 원자재 원목은 수입 관세가 썩 반면 제품의 관세는 높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세 문제만 조금 해결이 된다고 해도 목재업체가 재도약을 다질 수 있는 커다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실성 하나만을 철저히 가슴속에 새긴 채 오랜 시간 외길을 달려온 김태규 이사장. 그의 경영방침이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에서 다시 한번 빛을 발하기를 기대해 본다. ☞

박초혜 기자